

# “찢기고 빼앗긴 작품들 30년만에 제대로 된 전시”



이상호·전정호 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 광주시립미술관 '6월 항쟁 30주년 기념전' 갖는 이상호·전정호 작가



전정호 작가(왼쪽)와 이상호 작가

깃발·만장·판화·걸개그림 등 7월 30일까지 40여점 선 보여 작품 대부분 2006년경에 복원

“사드배치...더 멀어진 자주통일 6월 항쟁 30년, 달라진 것 없어”



전정호 작 '해방아리랑'

“밤새 깃발과 만장(輦章)을 만들어 나눠주면 다음날 집회에서 경찰에 쫓기며 잃어버리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던 시절이었어요. 참 긴박했던 날들이었죠.”

2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이상호(57) 전정호(57) 작가는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1980년대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두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과 5·18기념재단이 주최한 6월 항쟁 30주년 기념전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에 초대돼 7월30일까지 전시를 연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사용했던 걸개그림·판화·깃발·만장 등 4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목포 출신 이상호 작가와 신안 출신 전정호 작가는 고교시절부터 우정을 쌓은 40년지기다. 22살, 조선대 미술학과 82학번으로 나란히 입학해 대학미술운동에 앞장섰다.

전 작가는 “1987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5·18기념행사조차 하지 못했던 시기”라며 “시대상과 함께 노동자·농민 등 소외받은 계층의 문제를 전달하는 게 미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5년 지역 첫 대학 미술과 '시각매체연구회'를 결성한 두 사람은 이듬해 '시각매체연구회'를 '망글'으로 개편하고 학내 미술운동을 주도했다.

“사회운동은 흥성담·백은일 선배가 참여한 광주시각매체연구소가 주도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박철웅 전 총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 민주화투쟁에 집중했죠.”(이상호)

6월 항쟁을 계기로 두 사람은 학교 밖으로 나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전시장 한편에는 “철규를 살려내라”, “민중해방 조국통일” 등이 써진 가로 1m·세로 7m 크기 깃발이 걸려있다. 시위에 사용했던 깃발을 복원한 것들이다. 80년대 깃발과 걸개그림은 두 작가가 거의 전담했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에 밤에 몰래 학교 강의실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제작하곤 했다.

전시 대표작은 두 사람이 공동 작업한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가로 6m·세로 2.4m). 노동자와 농민이 성조기를 찢고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교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작가가 졸업작품으로 준비하던 그림들을 엮은 것으로, 1987년 8월 광주YWCA에서 열린 해방 42주년 기념전에 처음 전시됐다.

“그때는 북한 추종세력으로 몰리기 때문에 통일을 주제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림을 3점 출품했는데 다른 작품은 밖에서 걸었지만 이 작품은 주체축이 문제가 될까 우려해 내부에 배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죠. 광주에서 제대로 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전정호)

이후 전국 순회전인 '통일전'에 출품돼 서울, 부산 등에서



이상호 작 '그만 좀 쫓아와라!'

전시됐고 같은해 9월 제주에서 경찰에 압수당한다. 그림 내용 중 백두산 진달래가 북한 국화를 상징한다는 이유였다. 작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미술인으로서의 처음이었다. 이 작가는 그때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나, 총 등 강한 내용만 그렸기 때문에 잠시 여유를 주려고 미복동자를 넣었어요. 재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거슬렸을 거예요. 결국 진달래를 꼬투리 잡았죠. 정작 북한 국화는 목판인데 말이죠.”(이상호)

전 작가는 “순진한 마음에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무죄를 받고 그림도 돌려받을 줄 알고 항소도 안했다”며 “죄가 확정되고 그림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지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 2005~2006년 복원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작가는 출판작 중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작품으로 판화 '그만 좀 쫓아와라'를 꼽았다. 광주항교 앞에서 경찰에 쫓겨 도망갔던 경험을 담은 작품이다. 전 작가는 태극 모양으로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해방아리랑'을 선택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대표작이다.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두 작가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한탄했다.

이 작가는 “자주통일이 중요하지만 사드 배치 등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6·15 공동선언처럼 새 정권은 주체적으로 남북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작가는 “30년 전 최후투선을 맞으면서 불렀던 '아침이슬'을 지난 겨울 촛불집회에서 다시 부르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며 “지금 상황이 후세에게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글 사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내 안의 숲”...서지영 작가 초대전



'천공의 성'

## 갤러리 리체 8일까지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과 욕망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서지영 작가가 갤러리 리체에서 '내 안의 숲'을 주제로 8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내 안의 숲' 시리즈 등 일상에서 소재를 얻은 신작을 선보인다.

2011년 전업작가로 첫발을 내딛은 작가는 상상 속 풍경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을 뚜렷하게 구별해 작품에 담으며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다.

작품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년간 흔적은 남아 있다. 작품 '그들의 양자'에는 방금까지 누가 본 듯 책이 펼쳐져 있고 '그녀만의 왕국' 속 소파 위 쿠

션들은 흐트러진 채 놓여있다. '후쿠사의 그늘', '따뜻한 바람' 등은 꽃과 풀이 등장한다. 작가 자신을 숨겨주는 고마운 존재다. 어딘가 숨어 휴식을 취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망을 담았다.

또한 창문 너머 보이는 새파란 풍경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서씨는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목포에서 문화예술교육강사와 신선미술관 총괄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11회와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국 소치미술대전, 남부미술대전, 한국화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88년만의 귀향...나주 서성문 석등 점등

## 국립나주박물관 중앙박물관서 옮겨와 11일부터 전시

1929년 고향을 떠난 나주 서성문 안 석등(보물 제364호·사진)이 88년 만에 귀향해 불을 밝힌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석등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옮겨와 11일부터 전시한다.

석등은 기둥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고려 선종 10년(1093년)에 만들어졌다. 원래 흥통사에 있었던 석등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주읍성 서문 근처 몇 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당시 불발기집(火畧石·불을 밝히는 부분)과 둥근 모양의 꼭대기 장식(寶珠) 등 일부가 사라져 서울에서 새로 제작, 보수했다.

석등은 불발기집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3단으로 구성된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팔각 지붕돌을 얹었다. 불교문화가 성황을 이뤘던 시기에 통일신라시대 전통을 이어받아 제작해 짜임새 있고 여는



석등보다 꽃무늬 등 장식적인 면이 우수하다. 석등 제막식과 점등행사는 오는 11일 오후 3시다. 문의 061-330-781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